

### 전문가 집단의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바람직한 영양표시 방법에 대한 연구

송경희\*, 박혜련, 홍주영. 명지대학교 이과대학 식품영양학과, BH 영양연구소장

특수영양식품의 영양성분표시, 영양강조표시, 유용성표시·실태와 규격기준의 문제점과 특수영양식품을 이용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바람직한 영양표시 방법을 분석하여 특수영양식품의 적절한 표시모형을 개발하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. 본 조사는 1999년 7월부터 1999년 9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식품영양관련학과의 교수, 전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및 영양사, 특수영양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취급자와 특수영양식품의 개발과 분석에 관여하는 식품회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.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7.6%, 여자 72.4%였으며, 연령은 29세 이하 29.2%, 30-39세 47.6%, 40-49세 19.1%, 50세 이상이 4.2%였다. 학력은 고졸 이하가 0.9%, 대졸이 51.8%, 대학원졸 이상이 47.4%로 대졸이상이 90%으로 대체적으로 고학력을 보였다.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14.7%, 100-150만원 미만 33.2%, 150-200만원 미만 17.4%, 200-250만원 미만 13.4%, 250-300만원 미만 8.0%, 300-350만원 미만 5.3%, 350-400만원 미만 3.8%, 400-450만원 미만 3.1%, 450만원 이상이 1.1%로 나타났다. 100-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. 직업군별 비는 간호사 17.5%(80명),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17.9%(82명), 영양사 15.8%(72명), 특수영양취급자 15.8%(72명), 의사 15.8%(72명), 식품회사연구원 17.3%(79명)였으며,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인 경우가 39.0%, 5-10년이 34.4%, 11-15년 15.6%, 16년 이상은 11.0%로 나타났다. 영양성분 표시의 필요성이 90% 이상으로 나타난 영양소에는 열량, 당질, 단백질, 지방 등이 있었으며, 65% 이상이 요구한 영양소는 칼슘, 나트륨, 철분, 비타민 C, 비타민 A 순이었다. 제품의 바람직한 영양표시 방법에서 표시단위는 1인분 기준으로 표시가 65.1%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g당 표시가 29.3%로 나타났으며, 의사의 경우에만 100g당 표시가 48.6%로 1인분 기준으로 표시(45.8%)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을 뿐, 다른 직업군에서는 1인분 기준으로 표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. 영양표시기준으로는 해당식품의 사용자층 권장량 기준으로 표시하자는 의견이 91.6%로 지배적이었으며, 모든 직업군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. 영양소함량 표시방법은 영양소함량 표시와 표시기준의 % 둘 다 표시하자는 의견이 57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 표시기준의 % 표시가 28.2%, 영양소 함량만 표시가 14.5%로 나타났다. 유용성 표시방법으로는 국가나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입증된 것만 표시하자는 의견이 88.8%로 지배적이었으며, 직업간 유의성을 나타냈다( $P<0.001$ ). 바람직한 표시범위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표시된 영양소의 개수보다 적게 하면서 제품사가 원하는 특수성분, Na, 콜레스테롤, 식이섬유, 지방산을 표시하는 것이 26.2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표시된 영양소의 개수대로 표시하면서 제품사가 원하는 특수성분, Na, 콜레스테롤, 식이섬유, 지방산을 표시하는 의견이 19.6%로 높게 나타났다. 본 연구 결과, 이상적인 표시단위로 제안된 1인분 기준에서의 표시를 위해 1인분량의 산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, 표시기준, 유용성 표시방법, 표시범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, 정부차원에서 영양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특수영양식품의 구체적이고 필요적절한 영양성분표시를 시급히 의무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.